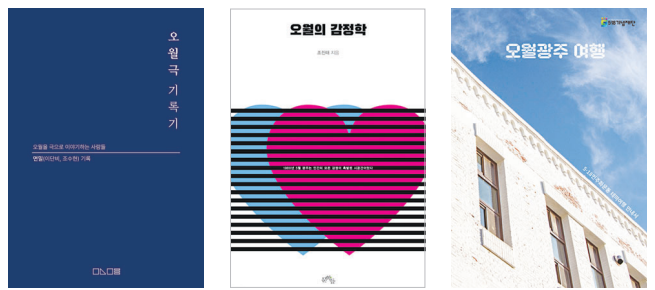


# 책으로 만나는 1980년 5월

문화단체 면밀 '오월극 기록기'  
조진태 시인 '오월의 감정학'  
5·18기념재단 '오월광주 여행'



(왼쪽부터) ▲청년문화기획단체 면밀 발간 '오월극 기록기' ▲조진태 시인 발간 '오월의 감정학' ▲5·18 기념재단 발간 '오월광주 여행'

1980년 5월을 담은 책이 잇따라 출간돼 화제다. 5·18민주화운동을 담은 극작품 오월극을 담은 '오월극 기록기', 조진태 시인의 '오월의 감정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및 사적지 주변 정보가 담긴 안내책자 '오월광주 여행'이다.  
청년문화기획단체 면밀(대표 조수현)이 발간한 '오월극 기록기'는 오월을 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오월극'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5·18민주화운동을 담은 극작품을 통칭하는 말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실연자들은 오월극을 통해 사람들에게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전

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극으로 마주하는 5·18 '다시 광주'를 통해 오월극 아카이브를 진행한 면밀은 지난해 오월극 실연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모아 오월극과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번 기록기를 발간했다. 여기서 실연자로 이번 기록기를 발간했다. 여기서 실연자로 이번 기록기를 발간했다. 여기서 실연자로 이번 기록기를 발간했다.  
이런 기록기는 이와 같은 실연자들의 이야기를 총 5장에 걸쳐 전달하며, 6장은 극으로 마주하는 5·18 '다시 광주'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해왔던 오월극에 대한 아카이빙 결과를 담았다.  
조수현 면밀 대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1980년부터 지금까지 광주가 안고 있는 아픔을 연극, 노래 등 다양한 오월극 속에 담아내 무대에 올린 사람들을 기념하며 이번 책을 발간하게 됐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진태 시인(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문학작품을 통해 성찰한 '오월의 감정학' (문학들)을 펴냈다. 저자는 '오월 광주'가 인간의 모든 감정이 촉발된 시공간이었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

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 경험을 감각화하는 기억 매체"가 바로 문학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평론집이나 비평서인 것은 아니다. 이 책에는 시와 소설 등 문학작품 외에도 사건 관련 구술이나 사료적 기록이 적잖이 등장한다. 저자는 이 기록들에서 분노와 공포, 슬픔과 기쁨 등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촉발되며, 그 감정의 무늬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돼 읽는 이들과 공감을 이루는지를 살피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발간한 '오월광주 여행'은 5·18민주화운동, 5·18사적지 정보, 사적지 주변 맛집, 체험시설 등 최신 맞춤 정보가 담긴 소책자다.

5·18사적지 안내책자 '당신이 모르는 그곳 오월광주'와 5·18안내해설사(오월지기)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안내해설 가이드북'을 바리모로 제작했다.

'오월광주 여행'은 오월길 방문자센터(5·18민주화운동기록관 1층, 광주 동구 금남로 221)와 5·18기념재단(광주 서구 내방로 152)에서 상시적으로 수령 가능하다. 또한 '오월길' 홈페이지(<http://518road.518.org/>)에서 PDF 파일을 확인·활용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 새책 나왔어요

◇안으며 업헌=한국문학에서 다른 문학적 지평도를 그려온 이정임, 박솔미, 김비, 박서련, 한정현 작가가 바다와 산복도로가 서로 안으며 업고 있는 곳인 부산 초량 곳곳을 각자의 방식으로 걸으며 완성한 소설집. 다섯 작가들이 초량에서 보내온 초대장이자 그동안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걸음의 아카이브. 곳간. 160쪽.



◇빛을 걷으면 빛=진중환 언어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신예작가 성해나의 첫 소설집으로 짧은 소설 여덟 편이 실렸다. 소설 속에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 서로를 울금게 바라보려 노력하는 인물들은 서로 자신과 타인이라는 근본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저 너머의 상대에게 가 닿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학동네. 4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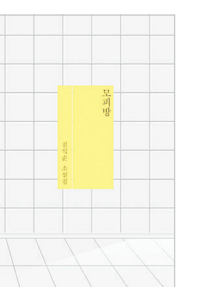
◇빈 쇼핑백에 들어 있는 것=제1회 문학동네대학소설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소설가 이종산의 신작. 그는 우리 주변에 산재한 공포의 순간을 담은 일곱 편의 단편을 통해 삶을 둘러싼 폭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의심하게 하는 사회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은행나무. 292쪽.



◇침묵은 여자가 되나=트로이아 전쟁에 관한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조명하는 소설. 트로이아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자 또 하나의 도시국가를 함락시키고 브리세이스 왕비를 자신의 노예로 삼은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역사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비에이블. 448쪽.



◇모피방=2011년 '철수사 용설명사'로 제1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전석순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 원금감과 방향감을 잃은 듯한 평면의 날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생을 살기 위해 집값과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민음사. 3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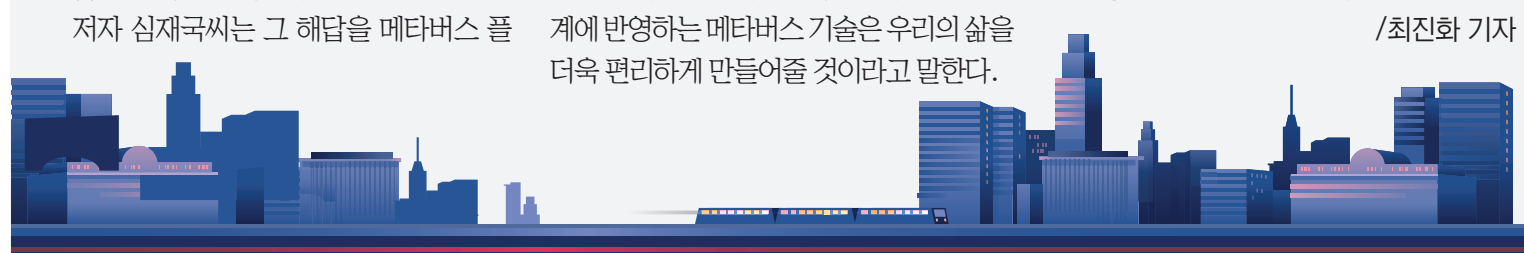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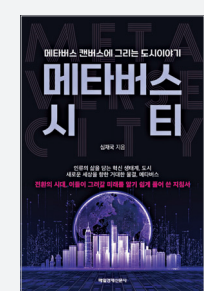
## 메타버스 캔버스에 그리는 도시 이야기

심재국 KCC 안성공장장  
'메타버스 시티' 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도시, 디지털을 활용해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재난 관리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현실과 가상이 연동해 현실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스마트 시티를 그리며, 인류 미래의 답을 '메가버스 시티'에 담았다.  
다소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하고 있지만, 도시문제를 메타버스라는 트렌디한 방식으로 풀어알기 쉽게 정리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미래의 도시가 궁금하다면 꼭 봐야 할 책이다.  
심재국씨는 신일고, 경희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에서 '새로운 유형의 창조적 산업입지' 관련 논문으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1년 KCC에 입사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총무·인사·자산·법무임원, 교육임원, 특히·정보관리임원, 연구 관리임원을 거쳐 총무·인사총괄임원을 역임했다. 현재 안성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진화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을 활용해 구현될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전망을 다룬 '메타버스 시티'가 출간됐다.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로 현대인의 일상 바뀐 현재. 계속되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 심재국씨는 그 해답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찾았다. 2차원 좌표에 3차원 공간 정보를 덧입히고,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제시한다.  
또한, 현실 도시에서의 문제를 디지털 가상 도시에서 해결하고, 이것을 다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메타버스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 전남여고문학 제8호 발간

전남여고문인회가 발행하는 '전남여고문학' 제8호가 발간됐다.

이번 8호에는 지역에서 잘 알려진 원로 여류 수필가 최정자의 '따남과 보남', 최은정의 '술속의 귀' 등 회원 34인의 시, 시조, 동시, 수필, 소설이, 준회원 작품으로는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한 이고은의 짧은 소설 '매미' 등 8명의 작품이 실렸다.

백일장 수상작으로는 '소통'과 '환경'을 주제로 한 올해 제4회 문예백일장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2학년 4반 박유민 학생의 시 '19시 에테르의 전화' 등 5인의 수상작이 담겼다.

서용좌 문인회 회장은 "앞으로도 재학생 준회원들을 주축, '전남여고문인회'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지역 여류 문인들을 배출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여고문인회는 오는 가을 전남여고 국어과 허수준 선생님과 미술과 박순애 선생님과 힘을 합쳐 가정 '동문사회전'을 열고 재학생들의 글씨와 그림을 동문들의 글과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